

## 체제전환 이후 공산당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동유럽 비셰그라드(Visegrád) 4국 사례를 중심으로\*

장승진 | 국민대학교

###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탈공산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과거 공산당을 계승한 계승정당이 민주화 이후에도 살아남고 나아가 선거를 통해 집권까지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계승정당의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에 반해, 본 논문은 과연 어떠한 유권자들이 계승정당을 지지하며, 이들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다른 정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유권자의 권위주의 성향이 계승정당에 대한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회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권위주의 성향과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사이의 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경제적 불만이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태도는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주제어 | 동유럽, 계승정당, 체제전환, 신생민주주의 국가, 권위주의 성향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42859).

## I. 서론

1989년 동유럽의 각국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맞이하였다. 1989년 6월 폴란드를 시작으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서 차례로 공산당에 의한 일당지배 체제가 무너졌으며, 이러한 흐름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Nicolae Ceausescu)가 총살당하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다. 각국은 다당제에 기반한 자유선거를 도입함으로써 약 반세기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과거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독점해온 정치적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이 단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sup>1)</sup> 민주화 이후에도 기존 공산당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양한 계승정당(successor parties)<sup>2)</sup>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질서 하에서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였다. 폴란드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Poland; SdRP)과 민주좌파연합(Democratic Left Alliance; SLD), 헝가리 사회당(Hungarian Socialist Party; MSZP),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민주좌파당(Party of the Democratic Left; SDL) 및 사회민주당(Direction-Social Democracy; Smer-SD)의 경우 기존의 교조적인 맑스주의를 포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중도 좌파 정당으로의 변신을 시도하였다. 심지어 체코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ohemia and Moravia; KSCM)은 민주화 이후에도 기존의 당명과 강령,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정치적 경쟁에 참여하였다(표1 참조).

- 
- 1) 비밀경찰에 협조했다거나 특별히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공산당의 간부나 당원이었다고 해서 민주화 이후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선출직)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제한을 받은 경우는 별로 없었다(Welsh 1996).
  - 2) 계승정당이란 과거 공산주의 체제 하의 집권당으로부터 정당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어받은 정당을 의미한다(Bozóki and Ishiyama 2002, 3). 물론 계승정당으로의 변신 과정에서 과거 공산당의 일부 분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 독자적인 군소정당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거의 대부분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1] 비셰그라드 4국의 공산당과 계승정당

	공산당	계승정당	기간
폴란드	Polish United Workers' Party (PZPR)	Social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Poland (SdRP) Democratic Left Alliance (SLD)	1990-1999 1999-현재
헝가리	Hungarian Socialist Workers' Party (MSzMP)	Hungarian Socialist Party (MSZP)	1989-현재
체코	Communist Party of Czechoslovakia (KSC)	Communist Party of Bohemia and Moravia (KSCM)	1990-현재
슬로바키아	Communist Party of Slovakia (KSS)	Party of Democratic Left (SDL) Direction-Social Democracy (Smer-SD)	1991-2004 1999-현재

물론 동유럽 각국의 계승정당들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경쟁에 적응하는 과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에게 과거 일당독재의 경험과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산당의 유산은 계승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민주화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모두에서 공산당 및 계승정당들은 패배를 거두고 새롭게 등장한 우파 정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 그러나 곧 멸종할 과거의 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동유럽 각국의 계승정당들은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기록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는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폴란드 사회민주당(SdRP)은 1993년 선거에서 다른 좌파 정당들과 함께 민주좌파연합(SLD)이라는 선거연합을 결성하여 20.4%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헝가리 사회당(MSZP) 역시 1990년 선거의 패배를 딛고 1994년 선거에서 33%의 득표율로 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였다.

더구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계승정당들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집권과 재집권을 반복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의 부활이 당시의 정치적 혼란에 힘입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민주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민주좌파당(SDL)의 경우에는 비록 1990년대에 걸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민주좌파당으로부터 1999년에 분리된 방향당(Smer)과 2005년 사회민주당(Smer-SD)라는 이름으로 재통합한 이후에는 두 번에 걸쳐 집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체코 공산당(KSCM)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권 경험은 없으나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꾸준히 1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3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sup>3)</sup>

본 논문의 목적은 흔히 비셰그라드(Visegrád) 4국으로 통칭되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공산당의 계승정당들이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다당제 질서 하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일부는 집권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을 유권자의 지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이들 4개국이 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이 민주화 및 계승정당과 관련하여 경험한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4개국은 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를 경험했으며 이후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점에서<sup>4)</sup> 이 지역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정당정치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4개국 간에도 계승정당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경로를 밟았다는 점에서(Grzymala-Busse 2002; Kuzio 2008; Orenstein 1998), 동유럽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계승정당이 겪은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2008년-2010년에 실시된 제4차 유럽가치연구(European Value Study)를 사용하여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에서 어떤 유권자들이 계승정당을 지지하며 이들은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3) 비록 집권 경험은 없지만 과거의 당명과 강령,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주요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코 공산당의 정치적 성과 또한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Stegmaier and Vlachova 2009).

4) 2014년 이코노미스트지(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67개국 중 체코가 25위를 기록하여 중·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각기 40위와 45위, 그리고 헝가리가 51위를 기록하였다.

논문의 분석은 계승정당의 부활 과정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분석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집권당을 계승했다는 특징을 가진 각국의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지 기반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authoritarian legacies)이 민주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가에 대한 비교정치적인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Diamond 2002; Rose and Shin 2001). 특히 비록 역사적 맥락은 상당히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집권당을 계승한 정당이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에서 곧바로 다시 집권했으며 현재까지도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셰그라드 4국의 계승정당의 지지 기반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있어서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 II. 계승정당의 등장과 유권자 지지

민주화 이후 비셰그라드 4국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권력을 독점해온 공산당이 해산되면서 극심한 정치적 공백기가 발생하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정치적 저항을 벌여온 세력은 새롭게 도입된 자유선거를 맞이하여 다수의 우파 정당으로 나뉘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체제전환 이후의 정치과정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Kitschelt, et al., 1999; 유진숙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은 기존의 조직과 당명, 강령을 수정하고 계승정당으로 거듭남으로써 다당제와 자유선거 체제 하에서의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였다(Bozóki and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학계에서 동유럽 국가의 계승정당의 정치적 생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는 박경미(2012)과 윤덕희(2002)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과 같이 유권자 수준에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Ishiyama 2002; Grzymala-Busse 2002; Ishiyama 1995; Ishiyama and Bozóki 2001).

## 1. 공산당의 변신과 계승정당의 부활

폴란드의 경우 공산당(Polish United Workers' Party; PZPR)와 자유노조 솔리더리티(Solidarity) 사이의 원탁협상을 통해 1989년 6월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비록 이 선거는 하원 의석의 35%와 새로 신설된 상원의 의석만을 대상으로 했다 - 나머지 의석은 공산당 및 그 위성 정당의 후보에게 사전에 할당되었다 - 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유선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이루어진 모든 선거구에서 공산당 후보가 패배하였다. 이후 폴란드 공산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지만, 기존 공산당의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폴란드 사회민주당(SdRP)이 설립되었다. 폴란드 사회민주당은 다른 좌파 정당들과 민주좌파연합(SLD)이라는 선거연합을 결성하여 1991년 총선에 참여했으나 12%의 득표율로 60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뒤이은 1993년 총선에서는 20.4%의 득표율로 171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폴란드 인민당(Polish People's Party; PSL)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비록 1997년 총선에서는 우파 정당에게 정권을 내주었지만, 1999년 공식적인 정당으로 재출범한 민주좌파연합은 2001년 총선에서 41%의 득표율로 196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정권을 다시 잡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좌파연합은 정치적 책임성의 결여 및 그로 인한 집권세력 내부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겪게 되었으며, (Jasiewicz 2008) 결과적으로 2005년과 2007년, 그리고 2011년 선거에서 민주좌파연합은 잇달아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2015년 선거에서 민주좌파연합은 좌파연합(United Left; ZL)이라는 선거연합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였지만 7.6%의 득표율에 그침으로써 원외정당으로 전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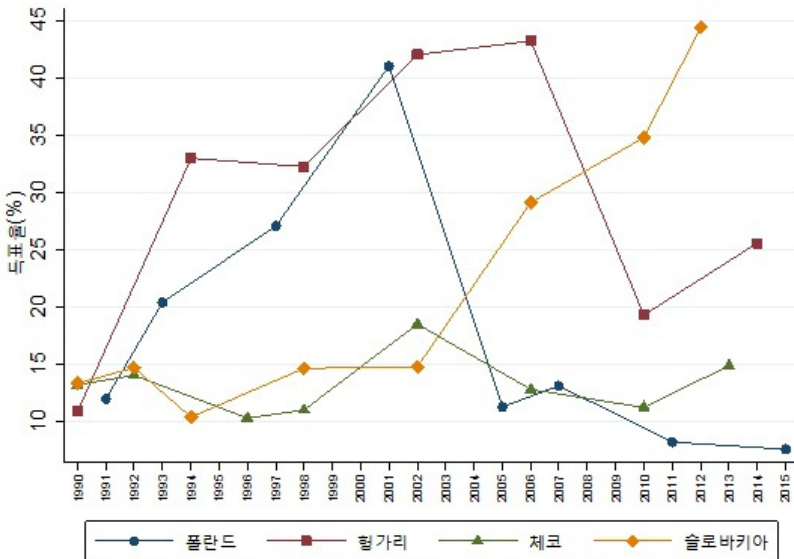
폴란드에 이어 헝가리에서도 정치적 자유화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1989년 10월 공산당(Hungarian Socialist Workers' Party; MSzMP)이 해산되고 개혁파를 중심으로 헝가리 사회당(MSZP)이 설립되었다. 비록 헝가리 사회당은 1990년 총선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이후 당의 노선과 조직을 정비하며 1994년 선거에서

33%의 득표율로 총 386석 중 209석을 차지하여 총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Free Democrats)과 손을 잡고 정권을 잡았다. 비록 1998년 선거에서는 헝가리 청년민주동맹(Fidesz)에게 패배했지만, 곧이어 2002년과 2006년 선거에서 40% 이상의 득표율로 잇달아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0년 선거에서는 개헌선을 넘기는 청년민주동맹의 압도적인 승리 와중에 19.3%의 득표율로 총 386석 중 59석의 의석을 획득하는데 그쳤으며, 2012년 개헌 이후 실시된 2014년 선거에서는 25.7%의 득표율로 총 199석 중 29석을 차지하여 여전히 제1야당으로 남아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Czechoslovakia; KSC)의 일당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프라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위 개최 후 며칠 만에 체코 공산당이 권력 이양과 일당독재체제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단시간에 평화적인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을 완수하였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1990년 체코 공산당(KSCM)과 슬로바키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Slovakia; KSS)의 연합으로 재구성되며, 곧이어 슬로바키아 공산당(KSS)은 민주좌파당(SDL)으로 변신한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공식적으로 분리 독립한 후 체코 공산당은 동유럽 계승정당 중 유일하게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며 반체제적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1990년 첫 의회 선거에서 10%를 웃도는 득표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민주좌파당은 1990년대를 거쳐 10%대 초반의 득표율을 유지해왔으나, 2002년 선거에 이르러서는 의석 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원외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오히려 1999년 민주좌파당으로부터 분리된 방향당(Smer)이 2003년 13.5%의 득표율로 25석의 의석을 얻어서 제3정당으로 부상했으며, 2005년에는 오히려 민주좌파당과 기타 좌파 정당들을 흡수하여 사회민주당(Smer-SD)으로 거듭났다. 이후 사회민주당은 2006년 선거에서 29.1%의 득표율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과 2012년 선거에서도 각기 34.8%와 44.4%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여 정권을 지속해가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비셰그라드 4국의 계승정당들은 대부분

민주화 이후 첫 선거에서 패배하며 권력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선거에서는 조직과 노선을 재정비하여 상당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계승정당들 사이에 집권 여부 및 집권에 성공한 시기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그림1 참조). 또한 과거 슬로바키아의 민주좌파당이나 최근의 폴란드 민주좌파연합과 같이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한 원외정당으로 전략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별 정당의 정치적 부침과는 별개로 이들 국가에서 계승정당들이 주류 정당정치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림1] 민주화 이후 의회선거에서 계승정당의 득표율 변화

주: 득표율은 하원 선거 기준이며, 계승정당이 다른 정당과 선거연합을 결성하여 선거에 참여한 경우는 선거연합 전체의 득표율을 사용하였다.

출처: European Election Database.

많은 연구들은 이와 같은 계승정당의 정치적 부활과 성공에 대한 요인을 무엇보다도 이들 정당의 이념적·조직적 혁신에서 찾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계



승정당들은 공산당 시절의 교조적 맑스주의에서 벗어나서 온건한 중도좌파 이데올로기를 표방하여 1990년대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들이었다(Ishiyama and Bozoki 2001; Ziblatt 1998). 심지어 헝가리 사회당의 경우 1994년 집권하며 기존의 우파 정권보다도 더 급진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이후 선거에서의 패배 요인이 되기도 했다(Pop-Eleches 1998). 이러한 이념적 변신의 핵심에는 단순히 체제 이행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권자 집단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능한 한 폭넓은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했다(Grzymala-Busse 2002). 반면에 체코 공산당은 정통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 있어서도 계승정당들은 과거 공산주의 시절 각 지역별 노동조합과 당원 조직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당 조직을 중앙집권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기능적 조직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하였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계승정당들은 이러한 조직 개편을 잘 이루어낸데 반해, 체코 공산당은 당원들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조직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Grzymala-Busse 2002; Ishiyama 1999; 윤덕희 2002). 특히 슬로바키아 민주좌파당의 경우 당의 노선으로 온건한 중도좌파 이데올로기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조직과 그로 인한 내부 분열로 인해 정치적 하락세를 견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보다는 치안과 부패 문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얻은 방향당에 흡수통합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Rybář and Deegan-Krause 2008).

그러나 비셰그라드 4국의 계승정당의 생존과 부활의 원인을 당 내부의 이념적·조직적 혁신에서만 찾는 것으로는 반쪽짜리 설명에 그칠 위험이 있다. 계승정당의 자기혁신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당제 하에서 한 정당의 성공은 다른 정당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계승정당의 생존과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어떤 이유에서 이들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계승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유권자들이 계승정당을 지지하며, 이들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다른 정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 계승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유권자의 좌·우 이념성향이 투표행태에 끼치는 영향력이다. 민주화와 함께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래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둘러싼 쟁점은 동유럽 각국의 정당정치의 핵심적인 균열로 등장했으며(Rohrschneider and Whitefield 2012), 이러한 균열 위에서 대부분의 계승정당들이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기반한 좌파 정당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좌·우 이념성향이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연구들이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좌·우 이념성향이 동유럽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산주의 시절 및 전환기 과정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경험과 연관된 변수들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op-Eleches and Tucker 2011; Tucker 2006).

이러한 관점에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가설은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체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불만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 계승정당들이 민주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겪은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사회안전망의 상실을 들 수 있다. 물론 민주화 직후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체제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며 오래지 않아 경제가 민주화 이전 수준으로 곧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Orenstein 1998, 482).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의 지속은 민주화와 함께 집권한 우파 정당에 대한 불만과 지지 철회로 이어졌다(Mahr and Nagle 1995; Tucker 2006).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과거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던 공산주의 시절에 대한 향수가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 즉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에 기반한 시장경제 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 가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외에도 민주화 이후 동유럽 각국이 경험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성에 대한 불만 또한 유권자들이 계승정당을 지지하게끔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이 극심한 선거 유동성(electoral volatility)과 정당 간의 끊임없는 이합집산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서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나 혹은 중·남미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다(Bielasiak 2002; Kitschelt et. al. 1999; Rose and Munro 2003; Tavits 2005). 또한 계속되는 부패와 정치적 스캔들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화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정치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일수록 계승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이행 과정이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혼란과 불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체제 이행 과정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태도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과 정당이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지지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s and Whitefield 1995). 더구나 민주화와 함께 과거 공산당에 뿌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좌파 성향의 정당들 역시 다수 출현했다는 점에서 우파 정당에 대한 불만이 어째서 다른 좌파 정당이 아닌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는가는 여전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Orenstein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가설은 유권자의 권위주의 성향(authoritarian predisposition)이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권위주의 성향은 사회적 규범과 질서, 그리고 그러한 규범과 질서를 제공하는 권위를 - 개인의 자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 중시하는 태도를 뜻하며,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Adorno et al. 1950; Altemeyer 1981, 1996). 특히 권위주의 성향은 불확실한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외부의 위협이 사람들의 권위주의 성향을 자극하여 특정한 집단이나 상황에 대한 편견과 불관용적 태도를 촉발할 수 있다(Feldman and Stenner 1997; Stenner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강한 권위주의 성향은 흔히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산당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탈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권위주의 성향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산당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sup> 비셰그라드 4국이 민주화를 경험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상당수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치적 사회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사회화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가—즉 권위주의 성향—에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의 유산은 민주화 이후에도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e.g., Pop-Eleches and Tucker. 2011),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절의 공산당을 계승하는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초래된 정치적·이념적 혼란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대안들보다는 과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질서와 권위를 제공했던 공산당을 계승한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III. 데이터와 변수조작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의 계승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6) 실제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계승정당이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과 이민과 유럽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극우세력과 연합을 이루는 적-갈 연합(red-brown coalition)이 종종 관찰된다(Bozóki and Ishiyama 2002; Ishiyama 1998).

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럽가치연구(European Value Study)의 제4차 조사를 사용한다. 유럽가치연구는 1981-84년의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1990-93년의 제2차 조사, 1999-2001년의 제3차 조사, 그리고 2008-10년의 제4차 조사를 통해 유럽 각국의 유권자들이 정치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분석의 종속변수로는 “내일 총선이 실시된다면 어떤 정당에게 투표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초점이 계승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민주화 이후 등장한 다른 정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사이의 비교에 있으므로, 각국의 계승정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1로 그 외 다른 정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0으로 코딩한 이항(binary)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2]에서는 제4차 조사에서 계승정당 및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들의 분포가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비교의 목적을 위해 10여 년 전에 실시된 제3차 조사에서 나타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제4차 조사 당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서 과반수를 넘는 52.5%의 응답자들이 내일이 선거라면 계승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계승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12% 남짓을 유지하고 있는 체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차 조사와 제4차 조사 사이에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폴란드의 경우 제3차 조사의 34.17%와 비교하여 제4차 조사에서 계승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10% 이하로 크게 하락하였다. 헝가리의 경우에도 제3차 조사와 비교하여 제4차 조사에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가 절반 이하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슬로바키아에서는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제3차 조사의 15%에서 제4차 조사에서는 52.5%로 3배 이상 크게 상승하였다.<sup>7)</sup> 결과적으로 제3차 조사와 제4차 조사 모두에서 비

---

7) 제3차 조사와 제4차 조사 사이에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의 변화는 비슷한 시기 실제 선거에서 계승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변화와 일치한다. 폴란드의 민주좌파연합(SLD)은 2001년 선거에서는 41.04%의 득표율로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10년 뒤 2011년 선거에서는 8.24%의 득표율로 제5당에 그친다. 헝가리 사회당(MSZP) 또한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 각각 32.25%와 42.05%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19.3%로 득표율이 크게 하락한다. 반면에 슬로바키아의 경우 1998년 선거에서는 민주좌파당(SDL)이 14.66%

세그라드 4국의 유권자 중 계승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네 명 중의 한 명꼴로 나타났다.

[표2] 국가별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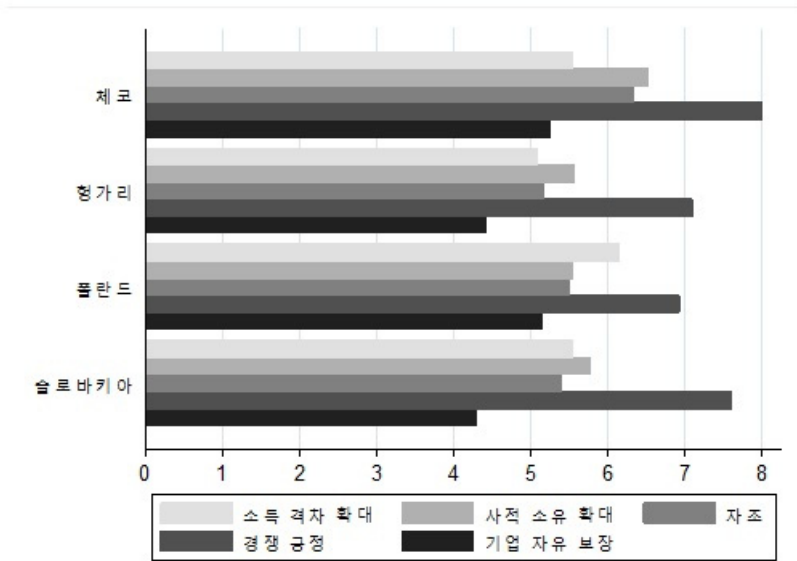
	제4차 조사 (2008-2010)			제3차 조사 (1999-2001)		
	계승정당 지지	다른 정당 지지	사례수	계승정당 지지	다른 정당 지지	사례수
폴란드	8.86	91.14	677	34.17	65.83	761
헝가리	23.25	76.75	800	49.91	50.09	551
체코	11.89	88.11	883	12.83	87.17	1255
슬로바키아	52.50	47.50	701	15.09	84.91	1014
합계	23.49	76.51	3061	23.71	76.29	3581

계승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우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고려하였다.<sup>8)</sup>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가 아닌 각자가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경쟁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과 창조성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등의 5개 문항에 대해 각기 동의하는 정도를 1부터 10점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대답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높은 동의를 표시할수록 시장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2]은 국가별로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4개국 모두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5개 문항에 대한 응

를 2002년 선거에서는 방향당(Smer)이 13.46%를 득표하는데 그쳤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Smer-SD)이 34.8%의 득표율로 제1당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8) 안타깝게도 유럽가치연구의 설문에는 경제 체제에 대한 평가와는 구별되는 경제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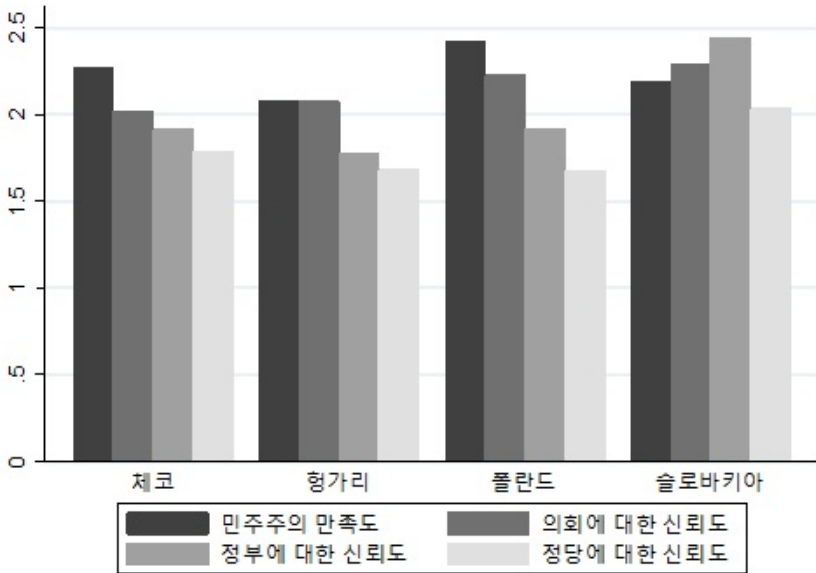
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2] 국가별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평균값)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정치 체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두 가지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만족한다”에 이르는 4점 척도를 통해 대답하였다. 또한 자국의 핵심적인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 동유럽 각국에 도입된 정치 제도의 핵심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된 민주적 의회와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와 의회, 그리고 정당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신뢰한다”에 이르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세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그림3]은 국가별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및 3가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각 문항이 4점까지의 척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4개국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3] 국가별 민주주의 만족도 및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도 (평균값)

세 번째 변수는 응답자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나타낸다. 권위주의의 성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다른 형태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사용하였다. 유럽가치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의회와 선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통치,”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국가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체제,” 그리고 “군대에 의한 통치” 등의 세 가지 형태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얼마나 좋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했다. [표3]은 세 가지 형태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가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비록 전반적으로는 군대에 의한 통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전문가에 의한 통치(expertocracy)에 대해서는 4개 국가 모두에서 상당한 선호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을 사용하여 응답자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측정하였다.

[표3] 국가별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 (%)

	매우 나쁘다	다소 나쁘다	다소 좋다	매우 좋다
<u>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통치</u>				
폴란드	34.81	44.15	17.59	3.46
헝가리	33.52	39.77	19.99	6.73
체코	43.52	27.36	21.13	7.99
슬로바키아	50.74	36.41	10.22	2.63
합계	40.52	36.59	17.52	5.37
<u>전문가에 의한 통치</u>				
폴란드	4.99	17.66	56.18	21.16
헝가리	5.22	10.37	50.69	33.72
체코	12.40	22.26	46.36	18.98
슬로바키아	3.31	11.93	62.05	22.71
합계	6.73	15.76	53.38	24.13
<u>군대에 의한 통치</u>				
폴란드	43.14	42.92	12.76	1.18
헝가리	67.66	26.25	5.14	0.95
체코	67.32	25.03	6.51	1.14
슬로바키아	64.66	32.44	2.75	0.15
합계	61.20	31.19	6.75	0.87

이상의 세 가지 종류의 독립변수 외에도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응답자의 다양한 정치적 태도와 사회경제적 특성 또한 통제되었다. 우선 일반적인 정치적 태도로서 응답자의 좌-우 이념성향, 정치적 관심, 그리고 일반화된 신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좌-우 이념성향은 10점 척도로, 그리고 정치적 관심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일반화된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이용

하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자신만 신경쓴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각기 10점 척도로 평가한 것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 연령, 소득 수준<sup>9)</sup>, 종교, 고용 형태, 성별 등 응답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통제되었다.

#### IV. 분석 결과

[표4]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4개 국가의 자료를 통합하여(pooled)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체코를 기준으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나타내는 가변인이 포함되었으며, 국가별 응답자들 사이에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를 계산하여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

9) 소득 수준의 경우 국가별 화폐의 단위와 가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유로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표4] 비셰그라드 4국 유권자의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로짓 모형)

	Coefficients (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0.032	(0.078)
민주주의 만족도			0.202	(0.244)
정치적 신뢰도			0.115	(0.155)
권위주의 성향			0.526 <sup>*</sup>	(0.135)
좌-우 이념성향	-0.502 <sup>*</sup>	(0.079)	-0.506 <sup>*</sup>	(0.071)
정치적 관심	0.107	(0.144)	0.109	(0.127)
일반화된 신뢰	0.015	(0.036)	0.002	(0.023)
연령	0.006	(0.022)	0.011	(0.018)
연령×연령	0.000	(0.000)	-0.000	(0.000)
대학졸업 이상	-0.638 <sup>*</sup>	(0.237)	-0.717 <sup>*</sup>	(0.261)
고등학교 졸업	-0.151	(0.149)	-0.209 <sup>*</sup>	(0.092)
월평균 가구 소득	0.047	(0.082)	0.045	(0.064)
풀타임 고용	-0.101	(0.090)	-0.118	(0.119)
자영업 종사	-0.276	(0.229)	-0.369	(0.304)
은퇴/연금수령	0.629 <sup>*</sup>	(0.)209	0.668 <sup>*</sup>	(0.235)
개신교	0.091	(0.166)	0.111	(0.184)
가톨릭	0.154	(0.196)	0.151	(0.214)
기타 종교	0.954	(0.729)	1.080	(0.797)
종교 행사 참여도	-0.182 <sup>*</sup>	(0.033)	-0.181 <sup>*</sup>	(0.035)
결혼 여부 (기혼=1)	-0.096	(0.107)	-0.069	(0.128)
성별 (여성=1)	0.112	(0.122)	0.104	(0.125)
폴란드	0.281	(0.173)	0.230	(0.170)
헝가리	1.303 <sup>*</sup>	(0.179)	1.336 <sup>*</sup>	(0.251)
슬로바키아	2.533 <sup>*</sup>	(0.201)	2.527 <sup>*</sup>	(0.196)
Constant	-0.298	(0.696)	-2.319 <sup>*</sup>	(1.051)
Pseudo-R <sup>2</sup>	0.3113		0.3243	
N	2274		2185	

주: <sup>\*</sup>p < 0.05.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과 관련하여 [표4]의 결과는 비세그라드 4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가 특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민주주의 및 대의제 기구에 대한 정치적 불만에 의해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고 해서 다른 정당에 비해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마찬가지로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와 의회, 그리고 정당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해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응답자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즉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일수록 민주화 이후 등장한 다른 정당에 비해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권위주의 성향의 영향력은 단순한 통계적 유의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들의 값을 중간값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권위주의 성향의 값을 최소값인 1에서 최대값인 4로 변화시키면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12%p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성향은 좌파 정당보다는 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 보다 친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어째서 다른 정당에 비해 계승정당을 지지하는가? 다시 말해서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어떠한 점에 대한 향수(nostalgia)가 이들로 하여금 공산당을 계승한 정당에 대해 정치적 지지를 보내게끔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하여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어떤 점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응답자의 권위주의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세 가지 인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권위주의 성향과 “민주주의 하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In democracy, the economic system runs badly),” “민주주의 하에서는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나치게 갈등을 조장한다(Democracies are indecisive and have too much squabbling),” 그리

고 “민주주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Democracies aren’t good at maintaining order)” 등 세 가지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sup>10)</sup>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5]와 [그림4]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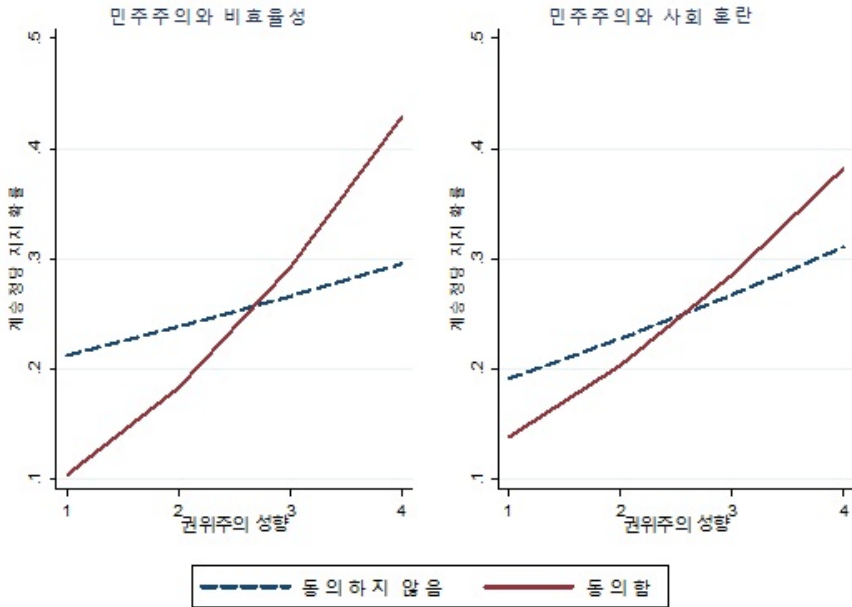
[표5]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와 권위주의 성향, 상호작용 효과

	Coefficients (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권위주의 성향	0.304*	(0.233)	0.231*	(0.117)	0.334*	(0.117)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	-1.015*	(0.426)				
권위주의 성향 × 경제 문제	0.373	(0.253)				
민주주의와 비효율성			-1.956*	(0.474)		
권위주의 성향 × 비효율성			0.722*	(0.117)		
민주주의와 사회 혼란					-0.938*	(0.244)
권위주의 성향 × 사회 혼란					0.361*	(0.070)
Pseudo-R <sup>2</sup>	0.3196		0.3289		0.3261	
N	2064		2086		2077	

주: [표4]에 나타난 다른 변수들 역시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에 차이가 없어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p < 0.05$ .

10) 각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	민주주의와 비효율성	민주주의와 사회 혼란
폴란드	64.66%	31.31%	48.59%
헝가리	57.40%	37.28%	55.85%
체코	61.35%	47.82%	45.21%
슬로바키아	64.10%	45.28%	57.41%
합계	61.69%	40.56%	51.37%



[그림4] 권위주의의 성향과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간 상호작용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며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주의 성향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회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에 권위주의 성향이 끼치는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 성향이 사회적 규범과 질서, 그리고 그러한 규범과 질서를 제공하는 권위에 대한 긍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는 인식은 권위주의 성향과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사이의 관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결국 비세그라드 4국에서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계승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 비록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저성장을 수반하였지만 - 사회적 안정과 통합에 대한 향수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계승정당의 정치적 생존과 성공에 소위 좌파 권위주의(left-wing authoritarianism)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권위주의 성향 외에도 [표4]의 분석을 통해 비셰그라드 4국의 계승정당 지지자들이 가지는 몇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좌·우 이념성향이 다른 정당에 비해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좌파 성향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계승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계승정당들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복지와 재분배를 추구하는 좌파 정당으로의 변신을 시도하였으며, [표4]의 결과는 이러한 변신이 실제로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로 부터의 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승정당의 지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이다. 교육수준은 유권자들이 체제 전환 과정에 적응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낮은 교육수준이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유권자에 비해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비록 그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유권자들 또한 고졸 미만 학력의 유권자들에 비해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비셰그라드 4국에서 나타나는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의 또 다른 특징은 은퇴 후 연금생활을 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다. 반면에 무직자(학생과 주부 포함) 및 파트타임 종사자와 비교하여 풀타임 종사자나 자영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가 특별히 높거나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록 종파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지를 막론하고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종교에 대한 상당한 억압이 존재했으며, 실제로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 단체가 민주화 운동 및 민주화 이후 우파 정당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Enyedi and O'Mahony 2004; Herbert 1999), 신앙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4국을 대상으로 기존 공산당의 정치적·조직적 자산을 이어받은 계승정당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살아남고 나아가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유권자들의 지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계승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단순히 정치적·경제적 불만족과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우파 정당에 대한 불만의 결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의 배후에는 유권자들의 권위주의 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계승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회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권위주의 성향과 계승정당에 대한 지지 사이의 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은 비교정치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유럽의 구공산권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유산이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Pop-Eleches 2007), 본 논문은 이러한 과거의 유산이 제도적인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Pop-Eleches and Tucker 2011). 나아가 -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집권세력을 계승하는 정당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현상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폭넓게 발견된다는 점에서(Loxton 2015), 본 논문의 분석은 권위주의 시절을 경험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논의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함의로는 권위주의 성향이 가지는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끼치는 영향력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Hetherington and Weiler 2009)에서도 드러나듯이 권위주의 성향이 유권자들의 정치적·사회적 태도와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신생민주



주의 국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일정한 환경적 요인 및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선택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미 공고화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회를 인식하는 가치체계로서의 권위주의 성향이 어떠한 수준으로 관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 성향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예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경미. 2012. "공산당 계승정당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주의 공고화." 『비교민주주의연구』 제8집 2호, 37-66.
- 유진숙. 2006. "이행기 사회에서의 자유주의 우파정당의 발전: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317-347.
- 윤덕희. 2002. "동유럽 공산주의 계승정당의 재출현에 관한 연구: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423-445.
- Adorno, Theodor W., Else Frenkel-Brunswik, Daniel Levinson, and R. Nevitt Sanford.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ltemeyer, Bob.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Canada: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ltemeyer, Bo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ielasiak, Jack. 2002.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lectoral and Party Systems in Postcommunist States." *Comparative Politics* Vol. 34, No. 2, 189-210.
- Bozóki, András, and John T. Ishiyama. eds. 2002. *Th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New York: M.E. Sharpe.
- Diamond, Larry.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2, 21-35.
- Enyedi, Zsolt, and Joan O'Mahony. 2004. "Churches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tic Culture: Difference and Convergence in the Czech Republic and Hungary." *Democratization* Vol. 11, No. 4, 171-191.
- Evans, Geoffrey, and Stephen Whitefield. 1995.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Democratic Commitment: Support for Democracy in Transition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4, 485-514.
- Feldman, Stanley, and Karen Stenner. 1997. "Perceived Threat and Authoritarianism." *Political Psychology* Vol. 18, No. 4, 741-770.
- Grzymala-Busse, Anna M. 2002. *Redeeming the Communist Past: The Regeneration of Communist Parties in East Central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bert, David. 1999. "Christianity, Democratisation and Secularisation in Central and

- Eastern Europe." *Religion, State and Society* Vol. 27, No. 3/4, 277-293.
- Hetherington, Marc, and Jonathan D. Weiler. 2009. *Authoritarianism and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hiyama, John T. 1995. "Communist Parties in Transition: Structures, Leaders, and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Ea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Vol. 27, No. 2, 147-166.
- Ishiyama, John T. 1998. "Strange Bedfellows: Explaining Political Cooperation between Communist-Successor Parties and Nationalists in Eastern Europe." *Nations and Nationalism* Vol. 4, No. 1, 61-85.
- Ishiyama, John T. 1999. "Th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and Party Organizational Development in Post-Communist Politic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2, No. 1, 87-112.
- Ishiyama, John T., and András Bozóki. 2001. "Adaptation and Change: Characterizing the Survival Strategies of th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7, No. 3, 32-51.
- Jasiewicz, Krzysztof. 2008. "The (Not Always Sweet) Uses of Opportunism: Post-communist Political Parties in Polan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1, No. 4, 421-442.
- Kitschelt, Herbert, Zdenka Manfeldova, Radoslaw Markowski, and Gábor Tóka. 1999. *Post-Communist Party Systems: Competition, Representation, and Inter-arty Coop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zio, Taras. 2008.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ommunist Successor Parties in Central-Eastern Europe and Eura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1, No. 4, 397-419.
- Loxton, James. 2015. "Authoritarian Successor Parties." *Journal of Democracy* Vol. 26, No. 3, 157-170.
- Mahr, Alison, and John Nagle. 1995. "Resurrection of the Successor Parties and Democratization in East-Central Europ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4, 393-409.
- Orenstein, Mitchell. 1998. "A Genealogy of Communist Successor Parties in East-Central Europe and the Determinants of Their Success." *East European Politics &*

- Societies* Vol. 12, No. 3, 472-499.
- Pop-Eleches, Grigore. 1998. "Separated as Birth or Separated by Birth? Th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in Romania and Hungary." *Easter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 13, No. 1, 117-147.
- Pop-Eleches, Grigore. 2007. "Historical Legacies and Post-Communist Regime Change."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908-926.
- Pop-Eleches, Grigore, and Joshua A. Tucker. 2011. "Communism's Shadow: Post-Communist Legacies, Values, and Behavior." *Comparative Politics* Vol. 43, No. 4, 379-408.
- Rohrschneider, Robert, and Stephen Whitefield. 2012. *The Strain of Representation: How Parties Represent Diverse Voters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 Richard, and Neil Munro. 2003. *Elections and Parties in New European Democracies*. Washington, DC: CQ Press.
- Rose, Richard, and Doh Cuhll Shin. 2001. "Democratization Backwards: The Problem of Third-Wave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 2, 331-354.
- Rybář, Marek and Kevin Deegan-Krause. 2008. "Slovakia's Communist successor part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1, No. 4, 497-519.
- Stegmaier, Mary and Klara Vlachova. 2009. "The Endurance of the Czech Communist Party." *Politics and Policy* Vol. 37, No. 4, 799-820.
- Stenner, Karen. 2005. *The Authoritarian Dynam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vits, Margit. 2005. "The Development of Stable Party Support: Electoral Dynamics in Post-Communist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9, No. 2, 283-298.
- Tucker, Joshua A. 2006. *Regional Economic Voting: Russia, Poland, Hungary, Slovakia, and the Czech Republic, 1990-199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lsh, Helga A. 1996. "Dealing with the Communist Past: Central and East European

Experiences After 1990."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3, 413-428.

Ziblatt, Daniel. 1998. "The Adaptation of Ex-Communist Parties to Post-Communist East Central Europe: a Comparative Study of the East German and Hungarian Ex-Communist Part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1, No. 2, 119-137.

투고일: 2016.03.01.	심사일: 2016.03.04.	게재확정일: 2016.04.01.
------------------	------------------	--------------------

## Electoral Support for Communist Successor Parties after Transition: The Case of Visegrád Four Countries

Jang, Seung-Jin |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how, after democratization, communist successor parties in Poland, Hungary, Czech, and Slovakia could survive and even were able to seize power in free election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internal factors within successor parti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who support successor parties and to how they are differentiated from supporters of other parties. Analysis shows that authoritarian predisposition among voters exerts a statistically and substantially significant effect on electoral support for successor parties, especially among those who think democracy is inefficient and brings about social disorder. On contrary, economic grievances or attitudes toward market economy do not influence electoral support for successor parties.

---

**Key Words** | Eastern Europe, Communist Successor Parties, Democratic Transition, New Democracies, Authoritarian Predisposition